Market Index / 10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058.75 +6.75		▲	666.90 +9.10		▲	57.83 +0.17		1USD	1201.66	1160.34	1EUR	1351.98	1299.24
										100￥	1103.50	1065.56	1CNY	180.06	162.92

취업자 증가 불구 일자리 질은 악화

6월 제주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 증가
비임금근로자 1년 새 10.5% 상승… 고용 질 하락

1년 사이 제주지역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3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3.2%) 늘었다.

이중 남성 취업자가 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2.3%) 증가했고, 여성 취업자는 7000명(4.4%) 늘어난 17만3000명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만명·1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00명·4.6%), 건설업(2000명·7.1%)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는 취업자가 각각 6000명(-6.1%)과 2000명(-4.9%)씩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8000명·15.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8000명·6.8%) 직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사무종사자 직종에선 1만명(-15.5%)이 줄었다.

전체 취업자가 늘며 고용률(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한 68.7%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에 비해 고용률 상승 폭이 적은 이유는 1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대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1년 사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도내 생산가능인구는 5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명(15%) 증가했다. 이중 39만1000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다.

제주 노동시장은 이처럼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질적으론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일컫는 비임금근로자가 13만7000명으로 1년 사이 1만3000명(10.5%) 늘어난 반면 임금근로자는 1000명 줄어든 24만6000명에 그쳤다.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33.4%에서 올해 34.8%로 1.4%포인트 증가했다.

또 임금근로자 중에 단기 일자리를 나타내는 임시·임용근로자가 39%를 차지했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000명(45.1%) 늘어난 7000명을 나타내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기초연금 수급자 5년만에 6만명

65세 노인인구 61.5% 수령

제주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가 6만2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3만9800명은 제주시에, 나머지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65세 노인인구가 9만7730명(6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 대비 61.5%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인 경우 월 137만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월 219만2000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 인상률에 맞춰 매년 증액됐다. 지난해 9월 월 지급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에 한해 지급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수령액 인상으로 수급자의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노인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전망대회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내달부터 월동채소 파종면적 줄인다

월동채소 수급안정 전망대회
재배면적 신고 시 사업 가점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반복하는 월동채소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파종면적 10% 이상 줄이기 운동과 함께 생산조정직불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1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2019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전망대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제주도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량부터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지 내 농작물을 무단 재배할 경우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반대로 재배면적을 성실히 신고한 농가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오는 8월말부터 10월까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월동채소 파종면적 10% 줄이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감자, 채소류를 제외한 녹비 작물(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녹색식물의 작물) 등을 재배해 거나 휴경을 통해 자율적인 생산량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직불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는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제주항공 특가 항공권 이벤트
지방공항 국내·국제선 대상

제주항공은 제주를 비롯한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약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가 운임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부산·무안·광주·대구·청주에서 출발하는 국내선·국제선 항공편이다.

편도 총액 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이용료 포함) 기준으로 광주~제주의 경우 2만400원부터 부산·청주~제주의 경우 2만1400원부터 대구~제주의 경우 2만9400원부터 판매한다.

국제선 중 제주~홍콩 노선과 제주~후쿠오카 노선은 각각 9만2300원과 5만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가능하다. 이상민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일본 제재와 증시 영향

"한·일 분쟁에 과도한 우려 경계"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 운영 조치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변경된 사항은 크게 2가지 였는데, 한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고, 특정 품목을 포괄수출 허가제에서 개별수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안보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한국을 더 이상 안보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일본은 표면적으로 안보 이유를 들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용 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 7월 21일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있다.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개입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와 경제 문제는 따로 취급해 왔던 양국이 이번에는 외교와 경제 문제를 엮어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수출입에 있어 타국과 긴장관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원칙이었는데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핵심 소재를 외교적 무기로 삼아 참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중의원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만약 18일 강제징용에 관련한 중재위원회설 답변시한까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본

최근 주식시장 하락 일본 분쟁과 연관성 적어
다만 수소차·롯데 계열사 등 단기적 부정 영향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이며 이 품목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가짜뉴스까지 활용되고 있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이 국산품으로 대체가 어려워 공급을 받지 못할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항공 업종도 일본 노선의 매출 비중이 11~26% 수준으로 국제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반일감정이 격해진 지금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인해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올려가며 반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 측에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예정으로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수출규제 대상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제품을 포함한 여타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 음식료, 유통 업종에 영향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지속된 자동차 부품 국산화 노력으로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소차에 필요한 화학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식료 및 유통 업종은 롯데 계열사들이 일본기업들과 설립한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법 인식에 의해 실적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일본과 무역분쟁은 정치적 사항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예상하기는 불투명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미국 고용' 뉴스 직후 나타났으며 일본과 영향이 없는 신흥국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일본과 분쟁에 과도한 우려감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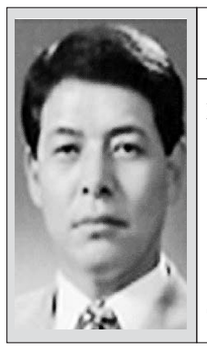
하귀2리	서홍동	유수암리	연동1.5룸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접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접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접함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음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접함,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 노진엽
위치 : 연북로 606, 3층
제주항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2차선접,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등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한림읍 옹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접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립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봉 저수지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독지 638㎡ 3.3억
- 선흘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종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